



2026년 8월 9일(제1312호) 연중 제19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세례성사를 준비하는 장병이나 종교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장병들에게 듣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의 정의를 말해주곤 했는데,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복잡하게 대답하지 않고, 장병들이 알아듣기 쉽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주교 기도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성호경을 긋고, 내가 청하고 싶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 바치면 됩니다.’

이 대답이 기도의 모든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내용보다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이 중요하고, 다양한 방법보다는 단순한 방법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움을 마주했던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명

령해달라고 청하고, 예수님의 ‘오너라’는 말씀에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다가서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센 바람으로 인해 다시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단순함으로 무장했던 베드로의 용기는 복잡한 생각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단순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 지금 마주하는 걱정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바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단순한 모습이 먼저 자리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다면, 가장 단순하게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호경을 긋고,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느님의 아드님인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강진욱(세례지요한) 신부
민포대(해군 제2원시(정부) 상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1열왕 19,9ㄱ.11-13ㄱ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 2 특 시 복음 본보송

로마 9,1-5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복 음 영 성 제 송

마태 14,22-33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진주교 군중교구사(군 사목 50년사)

개신교 교파의 하나인 침례교는 군중제도가 창설된 지 5년이 지나서야 육군에 목사를 파견하였는데 바로 김현우 목사였다. 김 목사는 1956년 육군 중위로 임관하여 제22사단 예하 연대에 배속되었다.

김 목사의 부친은 성결교회의 목사로 당시 이미 작고하였고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다. 그는 입대 전부터 교회에 대한 회의와 불안으로 인해 신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차츰 개종할 의사를 굳히고 있었다.

개종할 뜻을 굳힌 김 목사는 육군 군중감실로 안달원 신부를 찾아가 4차례(1957년 1월 27일, 2월 24일, 3월 19일, 3월 21일)에 걸쳐 그 절차를 비밀리에 상의하였다. 그리하여 김 목사의 전역 지원서와 군중감 동의서를 안 신부가 결재하여 당시 육군본부 인사국장이던 민병권 장군에게 제출함으로써 김 목사가 무난히 전역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육군에서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침례교의 항의는 물론 군중 고문관(미국 침례교 군목)의 이의 제기로 군중감실은 벌집을 쑤신 듯하였고, 군중감실 회의에서는 복무기간 미달을 문제삼아 병사로 복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역하였으므로 더 이상 문제는 없었다.

그 후, 김 목사는 1957년 7월 15일 명동 주교관 2층 성당에서 노기남 주교의 집전으로 성세성사를 받았다. 가니시오라는 세례명을 받은 김 목사는 안 신부의 주선으로 서대문 교도소 교도관으로 취직하였고, 그의 약혼녀도 안 신부로부터 영세입교하여 1957년 9월 24일 혼배성사를 받았다.

안달원 신부의 인도로 개종한 장교는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영어과에 근무하던 인준호 대위였다. 인 대위의 부친 인광호씨는 간도 출신으로 원래 천주교 신자였으나 장로교 목사가 되어 해군 군목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런 관계로 인 대위도 자연히 장로교 신자가 되어 당시 예배당 음악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 대위는 교파의 분열과 알력에 염증을 느껴 오던 중 안 신부에게 교리를 배워 1958년 3월 28일 부활절야에 그 가족 모두가 천주교로 개종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안달원 신부는 천주교 군 사목의 초창기와 침체기를 겪으면서, 군에서의 군중 업무와 사목활동, 그리고 군중신부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천주교 군 사목을 반석 위에 올려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군 사목의 개척자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중교구사(군 사목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복

음

목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아이처럼



마치 아이처럼
줄라 보았습니다.

그런 내게
오라 하십니다.

마치 아이처럼
아장아장

님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마치 아이처럼.

저기 님 품까지.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 '군중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

- 분량: A4 반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장 시 소장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화이야기

<예수님의 생애> 연작



<수난당하다>

이 작품은 우리가 사극을 보면서 흔히 보았던 끔찍한 고문을 받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예수님의 목에는 죄인들에게 씌우던 큰 칼이 채워져 있고,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풀어헤쳐진 채 예수님의 마른 등은 가혹한 매질로 붉게 얼룩져 있다.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로 인간의 폭력 앞에 놓인 예수님의 모습이 애처롭게 다가온다. 오른편의 한 군인은 가시관을 엮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

<십자가를 지고>

언덕 위에는 손이 뒤로 묶인 채 시몬의 도움으로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 뒤로는 말에 탄 군인들과 수많은 군인을 나타내는 창들이 늘어져 있다. 함께 십자가형을 받게 될 두 명의 강도도 보인다.

언덕 아래에는 슬퍼하는 여인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머리를 천으로 가린 채 두 손을 꼭 모으고 눈물을 흘리는 분은 성모님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엘리사벳)



교구소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9주일: 해군교육사 김윤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하상바로(제53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8월 9일(주일)
- 국장회의
때·곳: 8월 11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존인성사의 해